5월 선교회 모임 자료

십보라

본문 출애굽기 4:24-26 찬양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

> 본문 요약

- **이집트로 돌아가라**
  하나님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. 모세는 자격 없음/말솜씨 부족 등 여러 핑계를 대며 즉각 순종하지 않았고, 40년 미디안 생활로 민족적/신앙적 정체성이 희미해진 것이 배경입니다. (출 2:16-22; 3:11-4:13)
- **이집트로의 귀환**
  하나님이 기적과 아론을 통해 설득하셨으나 모세는 투철한 사명감 없이 마지못해 길을 떠났습니다. 장인에게 '형제들이 살아 있는지 알아보러 간다'고 한 말이 그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. (출 4:18-20)
- **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다**
  이집트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데, 아들 게르솜에게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집트 관습의 할례는 알았으나 여호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할례 의미를 소홀히 여겼습니다. (출 4:24; 창 17:9-14)
- **십보라 - 통찰력 있고 지혜로우며 용감한 여인**
  십보라는 사태의 원인을 즉각 파악하고 부싯돌로 아들의 할례를 직접 행하여 모세를 살렸습니다. 당시 할례는 남성의 역할이었으나, 십보라는 관습을 넘어 결단력 있게 행동하였습니다. (출 4:25-26)
- **모세를 깨우고 전통의 새 물줄기를 만든 십보라**
  이 사건 이후 모세는 각성하여 파라오 앞에서 '내 백성을 보내라'고 당당히 선포하였습니다. 현대 개혁파 유대교가 여성 할례 집도자(모헬레트)를 인정하는 것도 십보라의 행동에서 비롯된 전통입니다. (출 5:1)

> 기도

> 모세처럼 두려움과 핑계로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십보라처럼 즉시 깨닫고 행동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.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,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세워 가게 하옵소서.

> 나눔 질문

1.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지만, 두려움이나 자기 의심 때문에 미루고 있는 일은 없는지 함께 나눠봅시다.
2. 십보라는 남편이 할 수 없을 때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. 내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나서야 했는데 뒤로 물러섰던 순간이 있었나요? 또는 반대로,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 자리를 채워준 경험이 있었나요?
3. 십보라가 만든 '전통의 새 물줄기'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? 우리 교회나 가정에서 새롭게 회복해야 할 믿음의 전통은 무엇일까요?